

한국과 대만의 경제성장에서 중화학공업화의 성격과 역할

조준현*

- I. 머리말
- II. 중화학공업화의 배경과 내용
- III. 중화학공업화의 성과와 경제구조의 변화
- IV. 요약과 결론

1970년대 초반 한국과 대만 두 나라의 발전전략에는 重化學工業化라는 중대한 전환이 나타난다. 두 나라의 경제발전과정에서 重化學工業化는 1960년대 초반에 있는 輸入代替로부터 輸出主導로의 전환 못지 않게 근본적인 政策轉換이었다. 한국과 대만의 수출지향적 重化學工業化가 가지는 중요한 의의는 이후 두 나라의 기본적인 경제구조 및 산업구조의 골격이 바로 이 시기에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1980년대 이후 본격화된 동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간의 경제적 지위의 역전도 실은 1960년대부터 시작된 수출주도 성장전략 그 자체라기보다는 오히려 1970년대의 수출지향적 重化學工業化에서 가능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한국과 대만의 중화학공업화가 추진된 배경과 전개과정, 두 나라의 중화학공업화에서 나타나는 특징과 차이점 등을 분석한 다음, 중화학공업화가 이후 두 나라의 경제구조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지위에 미친 영향을 비교를 통해서 분석하였다.

주제어: 중화학공업화, 대만경제, 신흥공업경제(NIES)

* 부산대학교 국제지역문제연구소 교수

I. 머리말

한국과 대만을 비롯한 동아시아 신흥공업경제(NIES)가 1960년대 초반 비슷한 시기에 수출주도성장이라는 발전전략을 채택함으로써 지난 40여 년 동안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두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한국과 대만의 경제성장과정을 돌아보면 1970년대 초중반 두 나라의 발전전략에는 중화학공업화라는 중대한 전환이 나타난다.¹⁾ 물론 중화학공업화의 추진 이후에도 한국과 대만의 기본적인 발전전략이 여전히 수출주도성장이었다. 그러나 두 나라의 성장과정에서 가지는 의의에서 보면, 중화학공업화는 1960년대 초반에 있는 수입대체로부터 수출주도로의 전환 못지 않게 중요한 정책전환이었다. 가령 동아시아의 경제적 성공은 흔히 남미 신흥공업국들의 실패와 비교되는데, 실제로 두 지역에서 경제적 역전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는 것은 1980년을 전후한 시점이다. 두 지역의 경제적 지위가 1980년대로 진입하면서부터 가시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러한 차이의 요인들이 이미 그 이전서부터 형성되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1960년대 이후 동아시아가 추진해 온 수출주도전략 또한 하나의 기저적인 계기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도 틀림없으나, 보다 직접적으로는 1970년대 세계경제의 위기를 배경으로 한 새로운 발전전략의 수립과 실천에 얼마나 성공했는가가 이들 두 지역의 경제적 성취에서의 현저한 차이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한국과 대만 모두에서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의 의의는 결코 가볍게 취급될 수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국의 중화학공업화에 대한 연구는 부정적 평가가 주류를 이루어 왔다.²⁾ 즉 중화

1) 이 논문에서 동아시아의 네 신흥공업국을 가운데서 한국과 대만 두 나라만을 비교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홍콩과 싱가포르가 그 지정학(geo-politics)적 및 지경학(geo-economics)적 특수성 때문에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나 다른 개발도상국들에게 유용한 모델로 일반화하기에는 곤란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2) 박영구(1995)에 의하면 중화학공업화에 대한 비판의 근거는 무려 13가지에 이른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 연구의 대부분은 중화학공업화의 문제점을 하나의 '定意的' 사실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이다(박영구 1995, 103-04).

학공업 부문에 대한 무리한 자원배분은 다른 부문의 희생을 초래함으로써 경제의 구조적 불균형을 야기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은 소수 거대기업으로의 경제력집중과 시장구조의 독과점화, 소득분배상의 왜곡, 중소기업의 위축, 부실기업의 발생, 그리고 정부의 정책금융과 연관된 금융산업의 낙후성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했다는 것이다(신태곤 1997, 43) 1990년대 이후 극단적인 부정론이 후퇴하고 긍정론도 대두하였지만, 정책의 '時點'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경제적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절차를 거의 거치지 않고 대부분 선협적으로 주장되어 왔다는 한계를 가진다(박영구 1997, 567-68)

대만의 중화학공업화에 대한 연구는 우선 그 양에서부터 매우 빈약하다. 더 나아가 대만의 경제성장단계를 구분하면서 그것을 이전의 수출 주도 1단계와 구분되는 별도의 단계로 인정하지 않는 연구자들도 적지 않다.³⁾ 사실 대만의 경우에는 한국에서의 이른바 '중화학공업화 선언'(1973. 1)을 전후하여 나타난 것과 같은 '대약진'(big push)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차이는 정책전환을 전후한 두 나라의 경제적 상황이 달랐기 때문인데, 이로 인해 이후 두 나라의 정책추진과정과 내용에서도 상당한 대조적 특징들이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먼저 한국과 대만의 중화학공업화가 추진된 배경과 전개과정을 분석한 다음, 두 나라의 중화학공업화 정책 및 중화학공업 부문의 구조적 특성을 비교를 통해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두 나라에서 중화학공업화 정책의 성과와 이후 두 나라의 경제구조에서의 의의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3) 가령 웨이(Fei 1988)나 래니스(Ranis 1988)도 1960-70년대를 총괄하여 외부지향기로 구분하고 있는데, 웨이는 대만의 성장단계를 ① 수입대체기(1950-58) ② 정책전환기(1958-63) ③ 외부지향기(1963-1982)로 구분하며, 래니스도 ① 수입대체 국면(1950-62) ② 외부지향 국면(1962-80) ③ 기술지향 국면(1980-)으로 구분한다. 그러나 이에 반해 황(Hwang 1991)과 같은 경우는 ① 초기 재건기(1945-49) ② 수입대체기(1950-59) ③ 수출확장기(1960-69) ④ 중화학공업기(1970-79) ⑤ 전략산업기(1980-)로 구분함으로써 중화학공업화 단계를 인정하고 있다.

II. 중화학공업화의 배경과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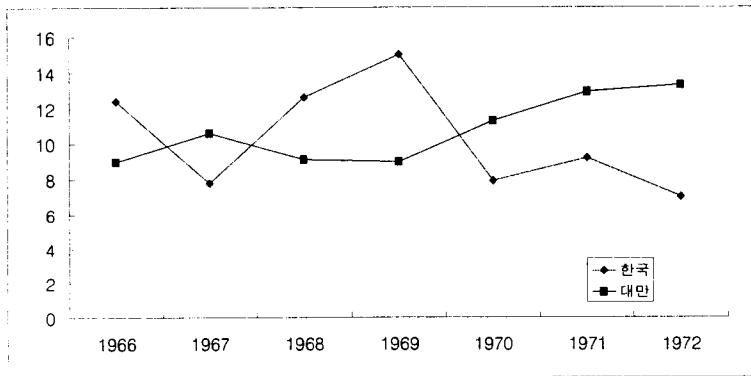
1. 한국과 대만의 중화학공업화 배경

한국과 대만의 중화학공업화는 모두 기본적으로 1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 초에 이르는 세계경제의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나타났다. 이 시기는 국제통화위기와 석유파동 등으로 인한 선진국 경제의 침체로 단순조립가공형 수출산업의 한계가 현저화되기 시작한 시기였다. 석유를 비롯한 1차 상품 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선진국 경제의 위축에 따른 보호 무역주의의 강화는 단순노동집약적이고 가공조립형 수출산업 중심의 성장을 지속하는 데 심각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었다. 세계시장의 구조변화에 대응하여 수출품의 구성을 변화시켜야 할 필요성과, 해외시장으로 부터의 중간재 및 자본재 구입의 곤란과 비용상승을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결국 수출주도적 중화학공업화로 현상화한 것이었다.

그러나 한국과 대만에서 위기의 심각성은 대조적이었다. 1970년대 초 한국경제가 당면한 문제는 크게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 및 국제수지 악화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인플레이션은 대체로 1960년대 후반의 고성장과 1969년의 3선 개헌 과정에서 급증한 통화량, 그리고 국제 인플레이션의 유입 등에 의한 것이다.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긴축정책은 경기침체를 가져왔다. 기업들은 불황의 타개를 위한 경기활성화 정책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불황을 일시적 정책조정의 결과로 간주하고 긴축정책을 계속 유지하고자 했다. 그 결과 1970년 이후 한국의 성장률은 계속 한 자리 숫자에 머물러 있었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국제수지였다. 1965년 91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던 한국의 경상수지는 1966년 처음 1억 달러 이상의 적자를 기록한 이후 급격히 악화되어 적자 규모가 1967년에는 1억 9,190만 달러, 1968년 4억 4,030만 달러, 1969년 5억 4,860만 달러 등으로 확대되어 갔다. 물론 이 기간 동안 한국의 수출은 1960년대 전체를 통해 연평균 40%를 넘는 높은 신장률을 기록했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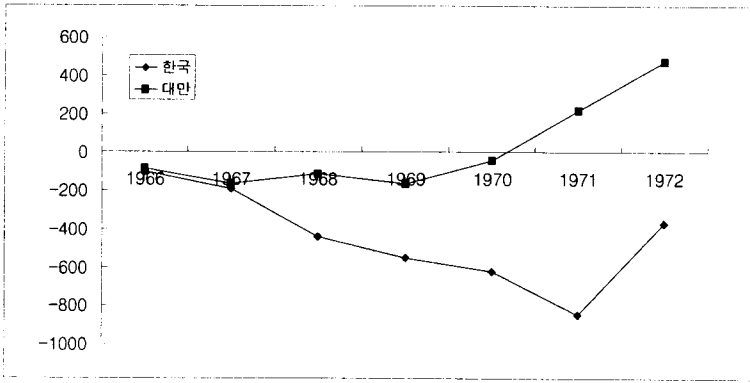
1960년대 후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선진국들의 보호주의 경향은 한국의 수출신장률을 둔화시켰고, 반대로 1차 상품 가격의 상승은 높은 수입 의존도를 가지고 있던 한국의 국제수지를 더욱 악화시켰다. 이 위에 수출주도 정책으로의 전환 이후 대규모적으로 도입한 상업차관의 원리금 상환이 시작되면서 국제수지 압박은 더욱 가중되었다. 이와 같은 차관의 도입에 따른 원리금 상환부담 이외에도 경상수지적자의 보전을 위한 외자도입 부담까지 추가되어 전체 대외채무 부담은 누적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1970년대로 들어서면서 한국경제는 만성적인 국제수지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그림 1〉 1970년을 전후한 한국과 대만의 경제성장률(단위: %)



자료 : 經濟企劃院, 1975, 『主要經濟指標』; CEPD, 1988, *Taiwan Statistics Data Book*.

〈그림 2〉 1970년을 전후한 한국과 대만의 국제수지(단위: 100만 달러)



자료 : 經濟企劃院, 1975, 『主要經濟指標』; CEPD, 1988, *Taiwan Statistics Data Book*.

한국과 비교해 1970년을 전후한 대만의 경제적 상황은 비교적 안정적이었다. 대만은 1969년에 한국이 기록한 15.0%의 성장률과 같은 경이적인 성과는 달성하지 못했지만, 그 반면 한국에서와 같은 성장률의 극단적인 동요를 경험한 적도 없었다. 석유위기가 일어날 때까지 대만에서는 대체로 10% 이상의 성장률이 지속되었다. 인플레이션 문제에 있어서도 1970년을 전후한 한국의 소비자물가는 평균 12% 내외의 상승을 기록했지만, 석유위기 이전까지 인플레이션 억제에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두었던 대만의 물가상승률은 대체로 3% 내외에 머물러 있었다. 1970년을 전후해 두 나라의 경제현실에서 가장 현저한 대조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무역수지이다. 한국이 1960년대 이후 계속 적자를 지속하고 있었던 데 반해 대만의 무역수지는 1970년을 계기로 오히려 흑자기조로 전환하였다. 1970년 대만은 2억 1,0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같은 해 한국의 무역적자는 무려 10억 4,000만 달러에 이르렀다. 요컨대 대내적 조건들만을 고려해 본다면 적어도 석유위기 이전의 대만에서는 한국에서 만큼 심각한 위기적 징후는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만의 경우 한국의 ‘중화학공업화 선언’을 전후하여 나타난 것과 같은 ‘대약진’(big push)

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은 바로 정책전환을 전후한 두 나라의 경제위기의 정도가 달랐기 때문이다.⁴⁾

그러나 대만에서도 1960년대 후반을 전후해 비숙련 노동력의 공급부족 현상이 나타나면서 급속한 임금상승으로 이제까지의 單純加功組立型 산업화가 한계에 직면하면서부터 산업구조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한다. 특히 수출용 경공업 부문에서의 생산력 확대가 중간재 및 자본재에 대한 수요를 급속히 증대시킴으로써 산업구조 심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를 위해서 중화학공업 부문과 기간산업 및 사회간접자본 부문에 대한 투자증대가 요구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정부 또한 1969년 초에 들어오면서 單純勞動集約的인 산업을 기술과 자본집약적인 산업으로 전환시켜야 할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Haggard 1990, 140) 특히 선진국들의 임금상승으로 인해 개발도상국에 대한 수요구조가 이전의 단순 조립가공형 제품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기술에 기초한 조립제품으로 변화함으로써 중간재 중심의 산업구조전환에 유리한 조건을 형성하기도 하였다(Haggard 1990, 140-41). 요컨대 세계시장의 구조변화에 대응하여 수출품의 구성을 변화시켜야 할 필요성과, 해외시장으로부터의 중간재 및 자본재 구입의 곤란과 비용상승을 해결해야 할 필

4) 물론 한국의 경우에도 중화학공업화 내지는 일부 중화학공업 부문의 육성이 이 때 처음 시도된 것은 아니었다. 한국에서 중화학공업화에 대한 필요성이 처음 제기된 것은 1960년대 후반부터이다. 수출주도 성장이 진행됨에 따른 경공업 부문의 생산력의 확대는 중간재 및 생산재에 대한 수요증대를 가져왔으며, 중화학공업 부문에 대한 국내수요가 생산을 위한 최소규모에 접근함으로써 중화학공업화의 기초적인 조건이 형성되었던 것이다. 특히 산업자본의 입장에서 중화학공업의 건설을 통해 자신의 축적기반을 확대시키고자 하였으며, 이에 따라 정부도 1960년대 말부터 이를 위한 정책들을 부분적으로나마 추진해 왔는데, 즉 1967년에는 '기계공업진흥법'이, 1969년에는 '전자공업진흥법', '석유화학공업육성법', '자동차공업육성계획'이, 그리고 1970년에는 '철강공업육성법', '조선공업진흥기본계획' 등이 잇달아 수립되었다. 그러나 이 때까지는 아직 중화학공업화로의 전환을 위한 종합적인 육성계획이 마련되어 있지도,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금융 및 재정·조세정책적 지원조치들이 구체화되지 못한 상태였다. 이러한 조치들은 1973년 1월 박정희의 '중화학공업화 선언' 이후에야 비로소 구체화되기 시작한다. 뿐만 아니라 이들 분야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가 시작됨으로써 이른바 중화학공업화를 위한 '대약진'(big push)이 나타나는데도 이 이후이다. 이 논문에서 1973년 1월의 '중화학공업화 선언'을 한국에서 본격적인 중화학공업화가 시작된 계기로 간주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요성이 결국 대만의 수출주도적 중화학공업화로 현상화한 것이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대만의 중화학공업화 또한 1970년대 초 세계경제의 위기가 미친 영향에 대한 대응의 산물이었다고 할 수 있다.

대만의 정책전환에 영향을 미친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은 대만의 특수한 정치적·군사적 지위에서 비롯되었다. 1971년 2월 25일 닉슨 미국 대통령은 본토의 공산당 정권과의 관계정상화를 선언하였다. 실제로 두 나라의 수교가 이루어진 것은 1978년 12월 15일이었지만, 대만의 경제성장에서 미국의 안보우산은 적지 않은 의미를 가져 왔기 때문에 미국과 본토의 관계정상화는 대만의 정치적 독립과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제기했다.⁵⁾ 이러한 위협의 경제적 영향은 즉각적으로 나타났는데, 한 예로 닉슨 대통령의 발표 이후 대만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1971년 1억 6,300만 달러에서 1972년 1억 2,666만 달러로 대폭 감소했는데 이것은 1970년의 실적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Gold 1988, 193). 대만의 중화학공업에서 군수산업의 비중이 높은 것이나 수출지향적인 동시에 수입대체적 성격을 강하게 지니게 된 데에도 이러한 배경이 있다. 특히 대만의 중화학공업화를 본격적으로 전개시키게 되는 “10대 프로젝트”와 같은 사회간접자본 및 기간산업에 대한 대규모 공공투자도 경제적 목적과 아울러 이러한 정치적·군사적 목적을 고려한 것이었다.⁶⁾

5) 물론 미국의 대외정책과 이를 둘러싼 동아시아 지역의 정치적 환경의 변화는 한국의 경제 개발에도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이 한국과 대만의 경제발전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김대래·조준현(2000)을 참조.

6) 1973년 11월 당시 행정원장이던 장정귀(蔣經國)가 주도한 “9대 사회간접자본 사업계획”에는 철도전력화를 비롯한 6개 사회간접자본 부문과 3개 중화학공업 부문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사업기간은 1974년부터 1978년까지로 계획되었다. 이 때 계획된 6개 사회간접자본 사업은 남북간 고속도로 건설, 철도 전력화, 수오(蘇澳)-화롄(華蓮) 간 철도 건설, 타오유안(桃塢) 공항 건설, 타이중(臺中)과 수오의 항만 건설 등이다. 또 3대 기간산업으로는 석유화학, 철강, 조선 등이 선정되었는데, 여기에는 카오승(高雄)의 조선소 건설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애당초 계획된 9대 사업의 총사업비 규모는 모두 60억 달러였으나, 1974년에 두 곳의 핵 발전소 건설 계획이 포함됨으로써 10대 사업으로 수정됨에 따라 사업비 규모도 70억 달러로 증가되었다(Han 1976, 123). 이를 위해서는 계획기간 동안 대만 총투자의 약 25%가 필요하였다.

2. 한국과 대만의 중화학공업화 특징

(1) 중화학공업화의 내용과 정책 비교

정책전환의 배경이나 중화학공업에 대한 강조라는 정책목표에서는 동일했지만 구체적인 실행과정에서 보면 한국과 대만의 지원방식은 상당한 대조를 보인다. 한국에서는 사회간접자본과 기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적인 재정적 및 금융적 정책수단들에 의존했으며, 또한 기업들에게는 세금감면과 정책금융 등과 같은 직접적인 지원책이 제공되었다. 이처럼 한국에서는 중화학공업화가 국내 민간자본의 축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는 데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으며, 이에 대해 정부 및 공공 부문은 민간 부문의 축적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그것은 민간자본 중심의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간자본만으로는 담당하기 어려운 기간산업 및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에 대해서는 정부가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대만 정부 역시 특정한 방향으로 산업구조를 조정하고자 시도했다. 그러나 그 과정은 한국에서보다 점진적이었으며, 간접적인 유인책과 기간구조의 제공, 그리고 제도적 지원에 더 많이 의존하였다.⁷⁾

대만에서도 본격적인 중화학공업화로의 전환을 위한 핵심과제는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에 있었다. 1953-73년 사이에 연평균 8.7%의 고도성장을 이룩해 오면서 대만 경제는 사회간접자본 부문에서 심각한 병목 현상을 겪고 있었다. 따라서 1960년대 말부터 대만 정부는 더 많은 경제력 토대의 건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다양한 사업계획들을 준비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계획들이 본격화된 것은 1973년 11월 당시 행정원장이던 장징궈(蔣經國)가 9대 사회간접자본 사업계획을 선언한 이

7) 이러한 대조적 특징들은 경제구조 특히 경제개발도에서의 차이와 제도적·정치적 차이점들, 즉 대만의 경우 정부와 민간기업 간의 관계가 덜 밀착되어 있는 데다가 재량적 정책수단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협소했다는 점 등에서 기인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조준현(1999)을 참조.

후이다. 여기에는 철도 전력화를 비롯한 6개 사회간접자본 부문과 3개 중화학공업 부문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사업기간은 1974년부터 1978년까지로 계획되었다. 이 때 계획된 6개 사회간접자본 사업은 남북간 고속도로 건설, 철도 전력화, 쑤오(蘇澳)-화롄(華蓮) 간 철도 건설, 타오유안(桃園) 공항 건설, 타이중(臺中)과 쑤오의 항만 건설 등이다. 또 3대 기간 산업으로는 석유화학, 철강, 조선 등이 선정되었는데, 여기에는 카오슝(高雄)의 조선소 건설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애당초 계획된 9대 사업의 총사업비 규모는 모두 60억 달러였으나, 1974년에 두 곳의 핵 발전소 건설 계획이 포함됨으로써 10대 사업으로 수정됨에 따라 사업비 규모도 70억 달러로 증가되었다(Han 1976, 123) 이를 위해서는 계획기간 동안 대만 총투자의 약 25%가 필요하였다.

한편 중화학공업화로의 전환을 위하여 대만의 경제계획위원회는 1973년에 시작된 제6차 4개년계획을 폐기하고 1976-81년간의 6개년계획을 발표하였다. 새로운 6개년계획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자본집약적이고 기술집약적인 산업으로의 전환이었다. 이러한 전환을 가능하게 한 것은 물론 1960년대 이후 대외시장을 위한 노동집약적 산업 부문에서 자본과 기술의 축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중화학공업화 이후에도 대만의 주력산업은 전자와 집적회로 등 중화학공업으로서는 비교적 노동집약적 성격이 강한 부문들이었다. 한편 1977년에는 경제계획개발위원회(Council for Economic Planning and Development)가 설립됨으로써 기술적 개선과 독자적인 과학과 공학 및 연구 토대의 구성에 더 많은 지원이 주어지게 되었다.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강조는 2차 석유파동 이후 더욱 강화되었는데, 1980년의 10개년 계획과 1982년의 4개년 계획 등은 에너지 및 자본집약 부문으로의 전환을 반영한 것이었다(Haggard 1990, 140-41).

이와 같이 중화학공업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대만에서도 정부의 광범한 금융적·재정적 지원이 요구되었다. 그런데 중화학공업화 단계에서도 대만의 금융정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은 전통적인 금리정책이었다.⁸⁾ 즉 대만 정부는 금리를 인상함으로써 저축률을 높이

는 방법을 선택했는데, 1973년 7월부터 1974년 1월 사이에 대만의 기준 금리는 3배나 인상되었으며,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8.75%에서 15%로 상승하였다. 이와 같은 금리상승으로 인해 저축성 예금의 비율도 1973-74년 사이에 19%에서 37%로 증가하였다(Hwang 1991, 51).

(표 1) 대만의 이자율과 저축률(단위 : %)

연 도	1969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재할인율	5.1	3.6	2.8	3.0	8.2	47.5	5.2	2.5	7.0	5.8
저축예금금리	9.72	9.72	9.48	9.00	9.36	14.40	12.33	11.83	9.90	8.50
저 축 률	23.8	25.5	28.8	32.1	34.6	31.7	26.9	32.5	34.9	34.5

자료 : CEPD, *Taiwan Statistical Data Book*, various issues.

물론 중화학공업화, 특히 사회간접자본의 건설은 대규모의 초기투자를 필요로 하는 만큼 대만에서도 기간산업과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의 적지 않은 부분은 정부 및 공공부문에서 조달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대만에 유리한 조건은 만성적인 재정적자에 시달리던 한국과 달리 대만에서는 1964년 이후 매년 대규모의 재정흑자를 축적해 왔다는 점이다. 재정흑자의 원천은 주로 고도성장에서 기인한 재정수입의 급증—이 가운데에는 전체 세입의 10%를 넘는 국영기업으로부터의 수익과 공공채 발행, 그리고 기타 수익 등이 포함되어 있다—이었는데, 1964-86년 동안 대만의 연평균 재정수입 증가율은 15.2%에 이르렀다. 그 결과 대만의 누적흑자는 1974년에 이미 60억 달러, 1979년에는 80억 달러에 달했다(Hwang 1991, 107). 대만의 저축률이 모든 개발도상국들 중에서도 특히 높은 수준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민간저축과 함께 대만의 투자재원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한 것은 바로 이 재정흑자였다.

8) 1949년 본토로부터의 이주 이후 대만의 금융정책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고금리정책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조준현(1998)을 참조.

(2) 중화학공업화의 성과와 특징 비교

중화학공업화를 전후한 한국과 대만의 산업구조는 <표 2>와 <표 3>에 나타나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은 1970년대 후반까지 대만의 GDP나 제조업 생산에서 중화학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국의 그것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대만의 제조업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중화학공업 비율은 1961년에는 24.3%에 불과했으나 1974년에는 50.2%, 1978년에는 51.8%까지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한국에서는 그 비율이 각각 22.8%, 39.0%, 44.5%였다. 물론 본격적인 중화학공업화가 추진된 1970년대 중반 이후의 성장률에서는 한국이 대만보다 급속했으므로 점점 그 차이가 좁혀지기는 했지만, 1980년대 초반까지는 여전히 대만의 산업구조에서 차지하는 중화학공업의 비율이 한국의 경우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인 통설과는 정반대인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현상은 실은 두 나라의 중화학공업화가 가지는 내용상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표 4>는 중화학공업을 장치산업 부문과 숙련산업 부문으로 구분하여 비교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장치산업 부문에서는 거의 모든 항목에서 한국의 비율이 더 높은 반면 대만에서는 숙련산업 부문의 비율이 더 높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⁹⁾ 두 나라의 장치산업이 제조업 부가가치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에서는 대만과 한국이 각각 34.3%와 37.6%로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고용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역시 특별한 의미를 가진 것은 아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는 수출 비중에서 나타난다. 한국의 장치산업은 전체 수출에서 20.9%를 차지하는 반면 대만의 그것은 불과 8.4%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차이는 물론 한국의 중화학공업화가 처음부터 수출지향적으로 추진되었음

9) 원문에서는 각각 “Heavy”, “High-Skill Light”로 분류하고 있음. 그러나 여기서의 고속련 경공업이란 상대적인 구분으로서 산업분류상으로는 중화학공업에 포함되는 것이 옳다. 여기에 포함된 기계, 전기, 금속제품 등은 <표 3>의 ISIC code 38에 속하는 부문으로서, 대만의 중화학공업 비율이 한국에서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부문의 높은 비중 때문이다.

을 의미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만의 낮은 비율은 여전히 설명되지 않는다. 따라서 여기에는 몇 가지 요인들에 대한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다.

〈표 2〉 한국과 대만의 제조업 총생산에서 중화학공업의 비율 (단위: %)

		1965	1971	1975	1981	1984
대만	경공업	51.2	50.7	46.7	43.4	41.5
	중화학공업	49.8	49.3	53.3	56.6	58.5
한국	경공업	61.8	54.7	51.6	47.2	43.2
	중화학공업	38.2	45.3	48.4	52.8	56.8

자료 : Wade, R., 1990, *Governing the Market: Economic Theory and the Role of Government in East Asian Industrialization*,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p. 45.

〈표 3〉 한국과 대만의 제조업 총생산에서 화학 및 기계 부문의 비율 (단위: %)

		1954	1961	1970	1974	1978	1982
대만	ISIC code 35*	14.7	14.6	21.8	26.2	27.0	21.1
	ISIC code 38**	7.5	9.7	20.4	24.0	24.8	26.1
	합 계	22.2	24.3	32.2	50.2	51.8	47.2
한국	ISIC code 35*	9.7	10.4	18.1	20.2	19.6	20.8
	ISIC code 38**	9.8	12.4	14.4	18.8	14.9	19.6
	합 계	19.5	22.8	32.5	39.0	44.5	40.4

주 : * 화학·석유화학·고무제품. ** 금속·기계·전기기계·수송장비.

자료 : Wade, R., 1990, *Governing the Market: Economic Theory and the Role of Government in East Asian Industrialization*,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p. 45.

〈표 4〉 한국과 대만의 중화학공업화 비교 (단위: %)

	장치산업	숙련산업	경공업
대 만			
제조업 부가가치의 비중	34.3	30.5	28.5
제조업 고용의 비중	28.2	32.1	34.7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8.4	53.1	29.7
노동생산성	5.4	4.3	3.5
자본집약도	9.8	4.0	4.6
한 국			
제조업 부가가치의 비중	37.6	24.3	30.0
제조업 고용의 비중	22.4	26.3	44.6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20.9	37.6	33.7
노동생산성	8.7	3.9	3.2
자본집약도	20.0	4.3	3.6

- 주 1) 합계가 100%가 되지 않는 것은 식품 부문이 생략되었기 때문임.
 2) 장치산업 : 기초금속, 도기와 유리제품, 화학 및 플라스틱, 수송장비.
 3) 숙련산업 : 기계, 전기, 금속제품, 기타.
 4) 경공업 : 종이, 섬유, 목재, 고무, 의류, 가죽, 신발, 기타.

자료 : Amsden, 1991, "Big Business and Urban Congestion in Taiwan: The Origins of Small Enterprise and Regionally Decentralized Industry," *World Development* 19(9), p. 1125.

한국과 대만의 중화학공업화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차이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요인들에서 비롯된 것이다. 첫째, 한국의 전략적 육성산업이 철강, 자동차, 조선 등 대규모 설비투자를 요구하고 진입기간이 긴 거대 장치산업 중심이었던 데 반해 대만에서는 플라스틱을 제외하면 전기, 기계 등 숙련노동집약적 산업 중심이었다는 점이다. 둘째, 한국에서는 철강 등 일부 소재산업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전략산업이 완성재 중심이었으나, 대만에서는 중간재 중심이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은 대만 경제의 특징 때문이다. 대만에서는 한국의 민간기업들이 수행한 것과 같은 대규모 투자를 가능하게 할 만한 축적이 민간 부문에서 이루어져 있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거대장치산업보다는 전자, 기계 등 숙련노동집약적 산업을 중심으로 특히 선진국 자본과의 OEM 방식이

나 하청에 의한 중간재 공급 부문에 진출하였던 것이다.

한편, 이상의 분석에 기초하여 두 나라의 중화학공업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차이도 다음과 같은 요인들로 설명될 수 있다. 첫째는 대만의 중화학공업이 중간재 부문에 대한 투자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즉 한국의 중화학공업이 완성재 중심이면서 수출지향적 산업으로서 국내의 산업연관효과보다 국제분업과의 연관효과가 더 큰 데 반해 대만의 중화학공업에서는 중간재 및 원자재 부문의 비중이 높으면서 동시에 국내의 산업연관효과가 한국에서보다 더 크다는 것이다. 둘째는 대만의 중화학공업 특히 국영기업 부문은 처음부터 국내시장 지향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며, 따라서 대만의 수출구조는 민간 중소기업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대만의 특수한 국가-기업 관계에서 연유한 것인데 첫째, 국민당 정권의 수립 이후 역사적으로 대만의 국영기업은 국내시장에서 강력한 보호를 받아왔기 때문에 이들은 민간기업보다 수출을 위한 유인책들에 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 둘째, 미국과 본토와의 관계정상화에서 비롯된 대만의 특수한 외교적 지위가 대만으로 하여금 국민경제의 내적 통일성과 완결성에 대한 강조를 강화시켰기 때문이다. 요컨대 대만의 중화학공업 부문은 처음부터 한국의 경우보다 더 국내수요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결국 단순 분류에 의한 중화학공업의 비율은 한국에서보다 대만에서 오히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거대장치산업을 중심으로 규모의 경제를 추구해 나갔다는 점에서 한국의 중화학공업화가 중화학공업화 본래의 의미에 보다 근접해 있다고 평가해 볼 수 있겠다. 즉 한국의 중화학공업화는 대만의 그것에 비해 보다 급속하고 광범하게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중화학공업화의 심도에서 대만의 그것을 앞서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대만의 중화학공업화가 간단히 간과해 버려도 좋을 만큼 의미없다는 것은 아니다. 왜냐 하면 기본적으로 중화학공업화가 두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수행한 역할은 동일한 의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III. 중화학공업화의 성과와 경제구조의 변화

1. 중화학공업화 이후 경제지표의 국제비교

글머리에서 이미 지적한 것처럼 한국과 대만을 비롯한 동아시아 신흥공업국들의 경제적 성공은 흔히 수입대체라는 다른 발전전략을 선택했던 남미 국가들의 실패와 비교된다. 그러나 1960년대에는 물론이거니와 1970년대 후반까지도 브라질과 멕시코 등 남미의 신흥공업국들은 동아시아의 한국이나 대만보다 높은 소득수준과 생산능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두 지역에서 경제적 역전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는 것은 1980년을 전후한 시점이다. 그런데 두 지역의 경제적 지위가 1980년대로 진입하면 서부터 가시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러한 차이의 요인들이 그 시기에 처음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아니며, 이미 그 이전서부터 형성되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두 나라의 경제발전과정에서 그것이 가지는 의의에서 보면, 1970년대의 중화학공업화는 1960년대 초반에 있는 수입대체로부터 수출주도로의 전환 못지 않게 근본적인 정책전환이었다고 평가되어야 하는 것이다.

한국과 대만 모두 1960년대 초반을 계기로 수출주도 정책으로의 전환을 추진한 이후 생산과 수출에서 상당한 정도의 성장을 기록하였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동아시아 국가들이 수출주도성장을 추진중이던 1960년대 말에서 석유위기에 이르는 기간 동안에는 브라질과 멕시코 등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 또한 수출과 소득에서 급속한 성장을 경험하던 중이었다. 이러한 성장은 전통적인 수입대체로부터의 정책변화에 힘입은 것이었는데, 새로운 정책의 핵심적인 내용은 기본적으로는 기존의 수입대체 정책의 기반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수출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었다. 정책변화의 효과는 특히 비전통적 부문의 수출확대에서 나타났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바로 브라질인데, 1969년에서 1973년까지는 흔히 '브라질의 기적'으로 불리는 시기로서 1969년에 9.9%를 기

록한 브라질의 성장률은 1970년에는 2.2%로 둔화되었으나 1971년부터는 다시 10%를 넘는 고도성장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1971-73년간 브라질의 실질 GDP 성장률은 각각 12.0%, 11.1%, 13.6%였다. 1973년 브라질의 수출은 전년에 비해 46.1%의 성장을 기록하였다. 같은 해 대만과 한국의 수출 증가율은 각각 47.5%와 73.7%였다(Lin Ching-Yuan 1989, 152). 이러한 자료들은 이른바 수출주도성장으로의 전환이 동아시아와 남미의 경제적 역전을 가져왔다는 기존의 관념이 그다지 설득력을 가지지 못하며, 문제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1973년 이후의 변화를 추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 준다.

(표 5) 동아시아와 남미 NIES의 주요경제지표 비교 (단위 : 10억 달러, 달러, %)

		1967	1969	1971	1973	1975	1977	1979	1981
한 국	국민총생산	4.3	6.6	9.5	13.4	20.8	36.6	61.4	66.2
	1인당 GNP	142	210	288	395	590	1,008	1,640	1,719
	실질성장률	6.6	13.8	9.1	14.0	6.8	10.7	7.0	6.6
대 만	국민총생산	3.6	4.9	6.6	10.6	15.3	21.5	32.8	47.2
	1인당 GNP	276	350	437	684	956	1,288	1,892	2,627
	실질성장률	10.6	9.0	12.9	12.8	4.2	-	9.6	5.7
브라질	국민총생산	28.3	40.3	51.8	79.8	124.5	174.8	227.7	264.7
	1인당 GNP	332	447	544	799	1,186	1,586	1,968	2,134
	실질성장률	5.4	9.8	12.2	13.5	5.6	5.7	6.4	-3.3
멕시코	국민총생산	24.5	30.0	39.2	55.3	88.0	81.9	134.5	239.7
	1인당 GNP	537	613	747	984	1,463	1,284	1,992	3,364
	실질성장률	6.3	6.3	4.2	8.4	5.6	3.4	9.2	7.9

주: 비교대상으로 브라질과 멕시코를 선택한 것은 이 두 나라가 한국 등 동아시아 4개국과 함께 OECD에서 신흥공업국으로 선정한 9개국의 일원이기 때문이다.
 자료: 경제기획원, 1987, 『주요해외경제지표』, pp. 15-24.

제1차 석유위기 직후인 1976-78년 동안 세 나라의 국민소득과 제조업 실질산출량은 한국과 대만이 각각 12.4%와 25.2%, 11.2%와 21.6%의

성장을 기록한 반면 브라질에서는 불과 7.6%와 7.5%의 증가만을 기록했을 뿐이다. 무역수지에 있어서도 대만의 경우를 보면 1974-75년에는 무역적자를 기록했으나 1976년부터는 다시 흑자국으로 전환하여 1976-78년 평균 국내총생산의 15.1%에 달하는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한국은 여전히 무역적자국이었으나 국내총생산에 대한 적자의 비율은 1976-78년 평균 3.9%에 그쳐 오히려 석유위기 이전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브라질에서는 무역적자의 비율이 46.4%에 달했는데, 이것은 석유위기 기간보다는 줄었으나 그 이전보다는 현저히 악화된 수치이다. 결국 한국과 대만에서 생산력의 증대가 비약적으로 나타나면서 흔히 비교되고는 하는 동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 제국 간의 경제적 성취의 차이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된 것은 사실상 중화학공업화 정책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진 1970년대 이후부터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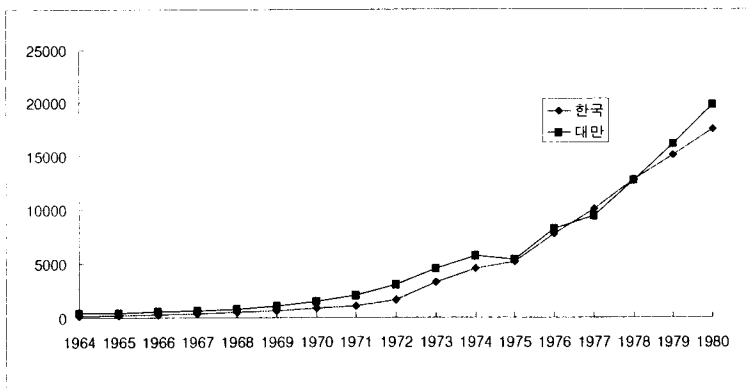
〈표 6〉 석유위기를 전후한 한국·대만·브라질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 %)

	1966-73	1971-73	1974-75	1976-78	1979-80
브라질					
실질 산출량	8.5	12.2	7.6	6.8	6.8
소비자물가지수	23.3	16.7	28.3	41.5	67.1
무역수지/GDP	-29.4	-39.5	-74.9	-46.4	-57.7
대 만					
실질 산출량	11.0	13.0	2.7	12.4	7.3
소비자물가지수	4.5	4.6	24.6	5.1	14.3
무역수지/GDP	2.6	12.9	-13.1	15.1	-1.5
한 국					
실질 산출량	11.5	9.8	7.7	11.2	2.1
소비자물가지수	11.3	9.3	24.8	13.3	23.4
무역수지/GDP	-43.6	-27.7	-36.1	-3.9	-22.7

자료 : Lin Ching-Yuan, 1989, *Latin America vs East Asia: A Comparative Development Perspective*, New York: M. E. Sharpe, p. 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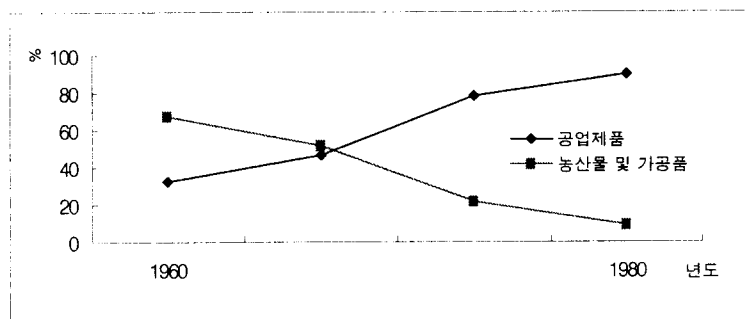
동아시아와 남미 두 지역의 NIES에서 나타난 역전의 계기를 가장 잘 보여 주는 것은 역시 수출이다.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과 대만 모두 1970년대 중반을 계기로 수출의 비약적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과 대만의 수출액은 1960년대를 통틀어 10억 달러 내외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1971년에 처음으로 20억 달러를, 1973년에는 40억 달러를 돌파한 이후 대만의 수출은 1976년 81억 6,600만 달러, 1977년 93억 6,000만 달러, 1978년 126억 8,700만 달러라는 급성장을 거듭하였다. 출상품의 구성에서도 제조업 부문의 급속한 성장은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공업제품의 비중을 1960년의 32.3%에서 1980년에는 90.8%까지 증가시켰다. 반면 농산물 및 가공품의 비중은 같은 기간동안 67.7%에서 9.2%로 하락하였다. 특히 한국과 대만 두 나라 모두에서 1975년을 계기로 수출의 신장세가 하나의 변곡점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로 볼 수 없으며, 이것은 결국 한국과 대만의 경제성장에서 중화학공업화가 단순히 기존의 수출주도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수출상품의 구성만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생산력과 공급능력의 새로운 도약을 가져온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림 3〉 한국과 대만의 수출액 추이 (단위 : 100만 달러)



자료 :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각호; CEPD, *Taiwan Statistics Data Book*, various issues.

〈그림 4〉 대만의 수출상품구성



자료 : CEPD, *Taiwan Statistics Data Book*, various issues.

한편 1970년대 중반을 계기로 동아시아와 남미 두 지역의 개발도상국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주요한 역전의 계기는 노동생산성의 변화이다. <표 7>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이 기간 동안 한국과 대만에서는 석유과 동과 같은 대내외적인 여건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노동생산성의 상승이 노동비용의 상승을 앞질렀다. 1974-75년 사이 브라질과 대만의 노동생산성 및 단위노동비용의 상승률은 브라질이 각각 -0.4%와 36.4%, 대만이 각각 -2.6%와 29.7%였다. 그러나 1976-78년 사이 대만에서는 노동생산성이 13.1% 상승하였으나 단위노동비용은 3.1%의 상승에 그침으로써 현저한 개선이 나타난 데 반해 브라질에서는 노동생산성의 상승은 3.8%에 그친 대신 단위노동비용은 43.7%나 상승함으로써 오히려 악화되었다. 그 결과 제1차 석유위기로부터 제2차 석유위기가 발생하기까지인 1976-78년 동안 한국과 대만의 실질산출량은 각각 11.2%와 12.4% 성장함으로써 불과 2-3년만에 석유위기 이전의 수준을 완전히 회복하였다. 이에 반해 같은 기간 브라질의 성장률은 6.8%에 불과했는데, 이것은 석유위기가 진행중이던 1974-75년간의 성장률 7.6%보다 오히려 후퇴한 기록이었다.

〈표 7〉 석유위기를 전후한 한국·대만·브라질의 노동생산성 (단위: %)

	1966-73	1974-75	1976-78	1979-80
브라질				
제조업 산출량	11.5	5.8	7.5	7.1
노동생산성	3.3	-0.4	3.8	5.5
단위노동비용	23.1	36.4	43.7	65.1
대 만				
제조업 산출량	21.0	0.7	21.6	7.7
노동생산성	8.9	-2.6	13.1	1.3
단위노동비용	4.3	29.7	3.1	18.5
한 국				
제조업 산출량	23.6	24.2	25.2	9.2
노동생산성	11.9	11.8	12.5	7.6
단위노동비용	8.8	17.9	18.9	9.0

자료 : Lin Ching-Yuan, 1989, *Latin America vs East Asia: A Comparative Development Perspective*, New York: M. E. Sharpe, p. 94.

한국의 중화학공업화에 대한 기존의 비판들 가운데 주요한 하나는 중화학공업 부문에 대한 투자가 과잉·중복됨으로 인해 경공업 부문에 비해 자본효율성이 매우 낮았다는 것이다. 이들 연구의 대부분은 중화학공업 부문의 과잉·중복투자, 낮은 조업률, 저효율을 검증이 필요하지 않은 ‘定義的’ 사실로 간주하여 왔다고 해도 틀리지 않는다(박영구 1995, 103.) 그러나 기존의 비판적 연구들이 주장하듯이 중화학공업 부문에 대한 과잉·중복 투자가 자본효율성을 극도로 저하시켰다면, 어떻게 해서 석유위기 직후 한국과 대만에서 노동생산성의 빠른 상승이 가능했는가 하는 점이다. 노동생산성(Y/L)의 상승률이 자본생산성(Y/K)의 상승률과 자본장비율(K/L)의 상승률의 합으로 계산된다는 점을 이해한다면, 석유위기 직후 한국과 대만에서 나타난 노동생산성의 상승이 중화학공업화로 인한 노동의 자본장비율 상승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추론해 내기란 어렵지 않다.

1970년대 전체를 통해 중화학공업 부문의 총투자 효율성과 설비투자

효율성 모두 경공업 부문에 비해 낮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초기투자 규모가 크고 자본의 회임기간이 긴 중화학공업의 단기적 투자효율성이 낮은 것은 당연하며, 1970년대 전반과 후반을 비교해 보면 중화학공업 부문의 효율성이 오히려 경공업 부문의 그것보다 빠르게 상승함으로써 두 부문간의 격차가 축소되어 감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중화학공업 부문의 설비투자 효율은 중화학공업화 초기인 1970년대 전반에는 48-68% 수준이지만 1970년대 중반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76% 선을 넘어서고 있으며, 특히 경공업 부문과 비교할 때 1972-73년에는 평균 27.7% 포인트 낮던 것이 1974-75년에는 4.5% 포인트의 차이까지 근접하였다(박영구 1995, 107). 장하원의 최근 연구 역시 1980년의 공황은 중화학공업 부문에 대한 과잉투자 때문이라는 주장은, 이 시기 자본계수의 하락이 중화학공업 부문만이 아니라 전산업에 걸친 현상이며, 중화학공업 부문의 가동률이 경공업에 비해서 낮지 않은 것은 물론 1970년대 초반보다 후반으로 오면서 오히려 상승한다는 점을 들어 부정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980년 공황을 가져온 이윤율 하락의 주요인은 중화학공업 부문에 대한 과잉투자가 아니라 오히려 이윤압박이라는 것이다(장하원 1997, 241-42).

〈표 8〉 한국의 제조업 노동 및 자본생산성과 기계화 변화율(단위 : %)

	기동률 보정 전			기동률 보정 후			
	산출/ 자본계수 (Y/K)	노동장비율 (K/L)	노동생산성 (Y/L)	산출/ 자본계수 (Y/K)	노동장비율 (K/L)	노동생산성 (Y/L)	기동률
1963-68	-0.2	4.4	4.1				
1968-71	1.0	14.9	16.1				
1971-75	-0.1	1.4	1.4	-1.3	2.7	1.4	1.2
1975-80	-8.7	18.0	7.7	-9.5	19.1	7.7	0.9
1980-86	4.3	8.2	8.2	1.3	6.8	8.2	3.0
1986-90	-5.4	5.2	5.2	-5.5	11.3	5.2	0.0

자료 : 장하원, 1997, "한국 산업정책의 진화과정과 이윤율 추세(1963-90)," 조원희 편, 『한국 경제의 위기와 개혁과제』, 풀빛, 233쪽.

요약해 보면 1970년대 초중반 세계경제의 위기가 국내경제에 미친 충격은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에서보다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더 심각했다. 한국과 대만은 빈약한 자원, 협소한 국내시장, 그리고 자원과 시장 모두에서 높은 해외의존도 등으로 인해 외적 위기에 보다 민감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다. 위기의 전개과정 역시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우가 훨씬 급속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동일한 위기에 비용압박 요인들을 억제하고 생산성의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보다 적절하게 대응한 것은 라틴 아메리카가 아니라 동아시아 국가들이었으며, 결국 이러한 대응의 차이가 19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의 외채위기에 이르는 동안 두 지역의 경제적 역전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2. 중화학공업화 이후 경제구조의 변화

(1) 중화학공업화 이후의 한국경제

1980년대로 들어오면서 한국경제는 대내외적인 경제환경의 변화와 함께 이른바 산업구조조정이라는 국면을 맞이한다. 1980년대 이후 한국경제의 성장이 1970년대의 중화학공업화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바로 1980년대 중후반 이후 이루어진 중화학공업 투자조정정책의 결과라는 주장은 지금까지 꽤 설득력 있게 반복되어 왔다. 그러나 1980년대 중후반 이후 한국의 산업구조조정의 가장 주목해야 할 결과는 <표 9>와 <표 10>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중화학공업과 경공업의 양극화 현상 속에서 중화학공업 중심의 수출지향적 구조가 더욱 강화되었다는 사실이다. 즉 1986-94년의 기간 동안 중화학공업은 연평균 13.1%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반면 경공업은 불과 2.9%의 성장에 그치고 있다. 1980년대 초반 즉 1980-86년 사이에 중화학공업과 경공업의 성장률이 각각 16.0%와 8.6%였던 것과 비교해 보면, 1980년대 후반 이후 전반적인 제조업의

성장둔화 속에서도 특히 경공업의 성장이 매우 저조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성장 양극화의 결과 제조업 가운데서 중화학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4년 현재 무려 73.6%에 달하게 되었다.

〈표 9〉 1980년대 이후 한국의 공업구조 변화(단위 : %)

	1980	1983	1986	1989	1992	1994	연평균 성장률		
							1980-94	1980-86	1986-94
경공업	53.0	46.6	43.2	36.6	30.5	26.4	5.3	8.6	2.9
중화학공업	47.0	53.4	56.8	63.4	73.6	73.6	14.3	16.0	13.1
소재산업	27.7	27.5	26.9	28.2	31.8	31.9	11.8	11.8	11.8
조립가공산업	20.4	26.6	31.6	36.8	39.3	43.2	16.8	20.9	13.9
소비재산업	51.9	45.8	41.5	35.0	28.9	24.9	5.1	8.3	2.7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7	12.4	9.5

자료 : 産業銀行, 1995, 『2000년대 韓國産業의 構造變化와 長期發展戰略』, p. 69.

〈표 10〉 1980년대 이후 한국의 수출구조 변화(단위 : %)

	1980	1983	1986	1980-86*	1989	1992	1994	1986-94*	1980-94*
공 업 전 체	90.0	90.8	91.7	12.4	93.4	92.8	93.4	13.8	13.2
경공업제품	48.4	39.5	41.6	9.3	39.7	32.4	26.8	7.5	8.3
섬 유	28.2	23.9	23.7	8.9	23.1	19.6	17.0	9.0	8.9
신 발	5.0	5.0	5.9	15.3	5.2	3.8	1.5	-3.9	3.9
중화학제품	41.6	51.3	50.1	15.6	53.6	60.4	66.6	17.7	16.8
금속제품	13.9	13.3	9.7	5.6	9.2	9.2	8.1	11.1	8.7
기계류	2.7	3.5	5.6	26.2	9.0	9.9	10.8	23.3	24.5
전자제품	9.4	10.0	12.0	16.8	14.7	16.7	18.9	20.2	18.7
자동차	0.5	0.4	4.0	56.4	3.7	4.1	6.0	19.6	34.2
선 박	3.5	2.5	5.2	19.7	2.9	5.4	5.2	13.3	16.0
기 타	10.0	9.2	8.3	8.7	6.6	7.2	6.6	10.3	9.6
합 계	100.0	100.0	100.0	12.1	100.0	100.0	100.0	13.6	12.9

주 : * 연평균 성장률

자료 : 韓國銀行, 『國際收支』, 각호.

이러한 현상은 수출에서도 거의 유사한 양상으로 나타났는데, 1986-94년 사이에 중화학공업 부문은 17.7%의 성장률을 기록한 반면 경공업의 수출은 연평균 7.5%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전체 수출액 가운데 경공업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의 48.4%에서 1994년에는 26.8%로 대폭 감소한 반면, 중화학공업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동안 41.6%에서 66.6%로 대폭 증가하였다. 한편 중화학공업 중에서도 기계류나 자동차와 같은 자본 및 기술집약적인 제품의 비중이 현저하게 증대하면서 한국의 수출구조는 1980년대 초의 금속 및 전자제품 중심에서 1990년대 초에는 기계류, 전자제품, 자동차 중심으로 전환하였다. 요컨대 1980년대 이후 한국의 경제구조는 기본적으로 1970년대부터 지속되어 온 중화학공업 중심의 수출주도 전략이 유지 또는 강화되었을 뿐이라고 요약할 수 있는 것이다.¹⁰⁾

(2) 중화학공업화 이후의 대만경제

제2차 석유파동이 있는 1980년대 초 대만경제가 직면한 대외환경은 정치적 측면과 무역환경 모두에서 매우 비우호적이었다. 높은 원유가격은 대만의 수출품 가격을 상승시켰고, 세계시장에서 그것들의 경쟁우위는 거의 상실되었다. 1979-82년 동안 대만의 연평균 성장률은 5.9%에 그쳤으며, 제조업 성장률은 그보다 낮은 3.2%에 불과했다. 여기에 1980년

10) 물론 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여전히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첨단산업 등 새로운 전략산업 부문에 대한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확대되면서 부품·소재의 생산이나 조립·공정 공정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의 하청계열화가 강화된 반면, 이러한 분업연관에 포섭되지 못한 중소기업은 도산과 휴폐업 등을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경쟁력이 약한 산업의 업종전환, 해외진출, 사양산업의 정리 등이 진행되었다. 다른 한편 대외 경쟁력의 측면에서도 성장을 주도해 온 중화학공업 부문의 높은 해외기술에 대한 의존도와, 가격경쟁력의 저하를 기술경쟁력의 향상으로 만회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지속적인 교역조건 악화 등의 과정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 남아 있다. 이렇게 본다면 결국 1980-90년대의 구조조정정책은 한국경제의 구조적 취약성과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극복하지 못한 채, 위기의 요인들을 단지 지연시킴으로써 1990년대 중후반 한국경제가 직면하게 된 구조적 위기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대 중반으로 들어서면서 새로운 대내외적 압력이 가중되었다. 1988년까지 대만은 GNP의 20%에 해당하는 무역흑자와 750억 달러에 이르는 외환보유고를 축적하였다. 이에 미국은 대만의 상품 및 자본시장에 대한 보다 광범한 개방화를 요구하였으며, 은행·보험·영화·리스산업 등과 패스트푸드 체인점을 포함한 서비스산업을 자유화하라는 압력을 가했다. 대만은 대규모 무역사절단을 통해 무역불균형과 통상마찰을 해결하고자 했으나, 이러한 노력들도 대미 흑자를 줄이지 못하였다.

대만의 개방화에 대한 미국의 압력의 초점은 수입개방보다 오히려 환율정책에 대한 것이었다(Haggard 1990, 143-44). 미국은 환율이 시장에서 결정되어야 대만의 통화가치가 더욱 절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압력에 따라 대만정부는 1989년 초 광범위한 환율체계의 자율화와 자본시장의 개방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대만의 구조조정을 강요한 이러한 대내외적 제약들, 특히 환율정책의 전환이 낳은 가장 중요한 결과는 수출상품구성의 변화이다. 대만 신대폐(NT\$)의 평가절상은 섬유 및 신발과 같은 대만의 전통적인 수출산업들로 하여금 더 이상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없게 만들었다. 미국 등 선진국들의 보호주의 강화 이외에도 중국과 ASEAN 등 후발 개발도상국들의 진입은 특히 저가 공산품 시장에서 대만이 차지하고 있던 몫을 계속 잠식시킴으로써 대만 경제의 변화에 대한 압력요인으로 작용했다. 따라서 대만정부가 보다 높은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산업들을 발전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전략적 합의에 도달한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대만경제가 이러한 위기적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과학기술과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덕분이었다. 1980년대 초반 대만정부는 대내외적인 경기악화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들을 도입했다. 1980-89년의 10개년 계획과 1982-86년의 4개년 계획은 모두 이러한 전환을 반영한 것으로서 기계기구, 반도체, 컴퓨터, 통신, 로봇공학, 생명공학 등이 새로운 전략산업으로 부상하였다(Wade 1990, 97-98). 대만의 새로운 수출산업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위를 차지한 것

은 IC기술을 이용한 전자산업과 컴퓨터를 포함한 정보산업이다. 특히 개인용 컴퓨터와 주변기기산업은 1980년대 중반 이후 대만의 가장 주요한 수출산업으로 대두하였다.¹¹⁾ 이처럼 1980년대 이후 새로운 대내외 경제 환경의 변화는 대만의 기존 주력산업들로 하여금 조업을 중단하거나 보다 싼 임금을 찾아 해외로 이전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지만, 개인용 컴퓨터와 노트북 컴퓨터와 같은 새로운 산업들이 전통적인 수출산업들이 지니고 있던 지위를 신속히 대체함으로써 대만경제는 이러한 변화와 위기에 대응할 수 있었다.

새로운 전략산업의 활발한 성장은 대만경제를 신속히 회복시켰다. 1983년 대만의 제조업 성장률은 14.1%로 1978년 이후 처음으로 다시 10% 수준을 초과했으며, GNP 성장률도 1984년에는 10.5%를 기록함으로써 역시 1978년 이후 처음으로 10%를 넘어섰다. 반면 1979-81년 사이에 두 자리 숫자를 기록했던 인플레이션률은 1982년부터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가장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인 것은 수출과 국제수지였다. 1982년 대만의 무역흑자는 33억 1,600만 달러로 그 전년에 비해 무려 235%나 증가하였으며, 1984년의 수출총액은 304억 5,600만 달러, 무역흑자는 84억 9,700만 달러에 이르렀다. 기존산업의 퇴출과 신산업의 등장으로 대만의 산업 및 수출구조는 보다 고도화되었지만 전체적으로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대만의 비중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 특히 1986-89년 사이에 미국의 압력으로 달러에 대한 통화가치가 40%나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대만의 비중은 약 2.5%의 수준을 계속 유지했다(Lau 1994, 98).

11) 스캐너의 경우 대만의 수출은 세계시장의 절반을, 마우스는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모니터와 키보드의 비중은 이보다 낮아 각각 42%와 26%에 불과하지만, 대만 기업들에 의한 해외생산을 포함하면 두 경우 모두 거의 50%에 이른다(Lau 1994, 99).

〈표 11〉 1980년을 전후한 대만의 주요경제지표 (단위 : 100만 달러, %)

	실질 GNP 성장률	제조업 성장률	소비자물가 상승률	도매물가 상승률	수출	수입	무역수지
1978	13.9	22.5	5.8	3.5	12,687	11,027	1,660
1979	8.5	6.4	9.8	13.8	16,103	14,774	1,329
1980	7.1	6.8	19.0	21.5	19,810	19,733	77
1981	5.7	3.5	16.3	7.6	22,611	21,199	1,412
1982	3.3	-0.6	3.0	-0.2	22,204	18,888	3,316
1983	7.9	14.1	1.4	-1.2	25,123	20,287	4,836
1984	10.5	12.2	0.0	0.5	30,456	21,959	8,497
1985	5.1	1.4	-0.2	-2.6	30,723	20,102	10,621
1986	11.6	14.9	0.7	-3.4	39,789	24,164	15,625

자료 : CEPD, *Taiwan Statistics Data Book*, various issues.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컴퓨터를 비롯한 대만의 새로운 전략산업들에 대한 육성과 지원 역시 1980년대 이후에 와서 비로소 시작된 것은 결코 아니었으며, 이미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에 이르는 중화 학공업화의 추진과 함께 시작되었다는 사실이다.¹²⁾ 이 점은 대만 IC산업의 발전과정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대만에서 IC산업의 발전은 정부가 이 산업의 육성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실험적인 제조공장을 건설한 1970년대 초반으로 소급된다. 이 단계에서는 주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IC기술의 연구개발에 목표가 주어졌으며, 실제로 연구를 담당한 것은 주로 ITRI였다. 1970년대의 기술적 성과를 바탕으로 대만 정부는 1979년 제2단계의 IC산업 육성을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이 계획의 목표

12) 대만경제가 본격적으로 새로운 전략산업 주도단계 또는 과학기술 주도단계로의 전환을 추진하게 된 것은 1979-80년의 경제위기를 전후해서이지만, 사실 대만에서 새로운 과학 기술산업에 대한 전략적 육성의 필요성은 훨씬 이전부터 이미 강조되어 왔다. 대만 경제의 과학기술화를 주도한 두 가지 중요한 계기는 산업기술연구원(Industrial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과 신쭈(新竹)과학산업단지(Hsinchu Science-based Industry Park)의 건설이다. ITRI가 설립된 것은 1973년으로서 대만 정부는 이미 1970년대부터 새로운 성장 부문을 위한 연구개발 능력의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온 기구가 바로 ITRI였다. 新竹 과학단지 또한 1980년에 완성되었으나 그것이 처음 기획된 것은 1969년이였다.

는 ① IC의 설계와 시험 및 응용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 ② CAD (Computer Aided Design) 기술을 IC 설계과정에 통합시키는 것, ③ 제조 능력을 발전시키는 것, ④ 대용량 IC기술을 발전시키는 것, 그리고 ⑤ 개발된 IC기술을 민간에 이전시키고 IC산업을 발전시키는 것 등이었다. 그러나 민간 부문에서는 필요한 기술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으므로 정부는 IC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IRTI의 기술인력 가운데 일부를 제조업자로 전환시켰다. 이들에 의해서 대만의 IC산업은 기술과 사업 양면에서 급속한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Hwang 1991, 79-80). 그 결과 IC기술과 관련된 대만의 컴퓨터 및 정보산업의 기술수준은 국제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메모리 분야를 제외한 거의 모든 부문에서 한국을 능가하고 있다(경제기획원 1992, 169).

이처럼 1980년대 이후 대만의 전략산업육성은 이미 1970년대의 중화학공업화 과정에서 그 토대를 형성해 왔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1980년대 이후 대만경제의 과제는 급변하는 세계경제환경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었다. 세계시장에서 대만의 경쟁우위를 유지하는 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컴퓨터 관련산업만 보더라도, 1983-93년 사이에 단위가격이 14%나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산업에서 대만의 총생산액은 4억 달러에서 104억 달러로 대폭 증가했다(Lau 1994, 98-99). 대만 경제의 성취는 세계경제환경의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함으로써 새로운 비교우위를 만들어 나가는 능력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IV. 요약과 결론

지금까지 이 논문에서는 1970년대 대만의 중화학공업화에 대하여 그 배경과 전개과정, 그리고 그 성과에 대하여 분석한 다음 한국과의 비교

를 통해 그 특징을 구명해 보고자 하였다. 특히 이 논문에서 밝히고자 했던 것은 한국과 대만의 경제적 성공과 1980년대 이후 본격화된 동아시아와 남미 국가들간의 경제적 지위의 역전이 단순히 1960년대부터 시작된 수출주도성장 그 자체라기보다는 오히려 1970년대의 수출지향적 중화학공업화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점이다.

한국과 대만 모두 1960년대 수출주도정책의 확대에 따른 경공업 생산력의 증대는 1960년대 말부터 이미 중화학공업화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나 본격적으로 두 나라가 산업구조의 심화를 추구하게 된 것은 1970년대 초반의 대내외적인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서였다. 한국과 대만의 중화학공업화에는 세부적인 측면에서 볼 때 상당한 차이점도 존재한다. 간단히 요약해 보면 한국과 대만의 중화학공업화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특징들은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볼 때 한국이 거대장치산업 중심인 데 반해 대만에서는 숙련노동집약적 산업의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첫째, 한국의 전략적 육성산업이 철강, 자동차, 조선 등 대규모 설비투자를 요구하고 진입기간이 긴 거대장치산업 중심이었던 데 반해 대만에서는 플라스틱을 제외하면 전기, 기계 등 고속련 경공업 중심이었다는 점, 둘째, 한국에서는 철강 등 일부 소재산업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전략산업이 완성재 중심이었으나, 대만에서는 중간재 중심이었다는 점, 셋째, 대만에서는 거대장치산업보다 전자, 기계 등 노동-기술집약적 산업을 중심으로 OEM 방식이나 하청에 의한 중간재 공급부문의 비중이 높다는 점 등이다.

이러한 차이점들은 바로 한국과 대만이 경제성장의 초기에서부터 지녀 온 경제구조 및 경제정책상의 차이점들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사회간접자본과 기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적인 재정적 및 금융적 정책수단들에 보다 많이 의존한 반면 대만에서는 간접적인 유인책과 제도적 지원 등에 더 많이 의존하였다. 한국에서는 이른바 재벌이라는 민간대기업들이 주요부문에 적극적으로 진출했으나, 대만에서는 국영기업들이 그러한 역할을 담당했다. 이는 중소기업의 비

중이 높은 대만에서는 한국의 민간기업들이 수행한 것과 같은 대규모 투자를 가능하게 할 만한 축적이 민간부문에서 이루어져 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요컨대 한국과 대만의 중화학공업화에서 나타나는 대조적 특징들은 경제구조에서의 차이와 제도적·정치적 차이점들, 즉 대만의 경우 정부와 민간기업들간의 관계가 덜 밀착되어 있는 데다가 재량적 정책수단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협소했다는 점 등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한국과 대만의 수출지향적 중화학공업화가 가지는 중요한 의의는 이후 두 나라의 기본적인 경제구조 및 산업구조의 골격이 바로 이 시기에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물론 1980년대 이후 전세계적인 산업구조조정 의 여파로 한국과 대만 역시 중요한 구조변화를 겪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대만의 경우를 보면 또한 미국과의 통상마찰로 인한 대만 新台幣(NT\$)의 평가절상은 대만의 전통적인 수출산업들로 하여금 더 이상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없게 만들었다. 따라서 이들 산업은 조업을 중단하거나 보다 싼 임금을 찾아 해외로 이전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 대신 기계기구, 반도체, 컴퓨터, 통신, 로봇공학, 생명공학 등이 새로운 전략산업으로 부상하였으며, 개인용 컴퓨터와 노트북 컴퓨터와 같은 새로운 산업들이 전통적인 수출산업들이 지니고 있던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한국의 경우에도 유사한 대내외적 압력이 1980년대 중후반의 산업구조조정을 이끌었으나, 그 결과는 중화학공업과 경공업의 양극화 현상 속에서 중화학공업 중심의 수출지향적 구조가 더욱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결국 1980년대 이후 나타나는 한국과 대만의 산업구조조정 및 수출상품구성의 변화는 이미 1970년대부터 시작된 중화학공업화 정책의 추진 이후로 두 나라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경제구조를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시켰다고 해야 옳은 것이다.

참고문헌

- 經濟企劃院. 『經濟白書』. 각호.
- 김대래·조준현. 2000. “미·일·동아시아 3각 순환의 기원과 전개.” 『경상논총』 18(2).
- 박영구. 1995. “重化學工業의 效率性에 관한 연구.” 『經濟學研究』 43(1).
- _____. 1997. “산업정책의 適正時點과 需要面에 대한 경제사적 연구: 需要面에서 본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 『經濟學論集』 6(2).
- 장하원. 1977. “한국 산업정책의 진화과정과 이윤을 추세(1963-90).” 조원희 편. 『한국경제의 위기와 개혁과제』, 풀빛.
- 신태곤. 1997. “80년대 후반 이후 산업구조 조정정책에 관한 연구.” 『經濟學論集』 6(2).
- 정용석. 1997. “1970년대 한국 중화학공업화 정책의 성장사적 의의.” 『經濟學論集』 6(2).
- 조준현. 1998. “한국과 대만의 경제성장과정에서 금융정책의 역할과 성격.” 『경제발전연구』 4(1).
- _____. 1999. “동아시아 NIES의 성장요인 비교분석: 1960-70년대 한국과 대만의 경제정책 성격과 역할.”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_____. 2001. “1970년대 대만의 중화학공업화에 대한 분석.” 『경제경영연구』 2(1).
- Amsden, A. H. 1989. *Asia's Next Giant—South Korea and Late Industrializ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_____. 1991. “Big Business and Urban Congestion in Taiwan: The Origins of Small Enterprise and Regionally Decentralized Industry.” *World Development* 19(9).
- Galenson, W., ed. 1979. *Economic Growth and Structural Change in Taiwan*. Ithaca,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 Gold, T. B. 1988. “Entrepreneurs, Multinationals, and the State.” E. A. Winckler and S. Greenhalgh, eds. *Contending Approaches to the Political Economy of Taiwan*. Armonk: M. E. Sharpe.
- Haggard, S. 1990. *Pathway from the Periphery: The Politics of Growth in the Newly*

- Industrializing Countries*. Ithaca,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 Ho, S. P. S. 1987. "Economics, Economic Bureaucracy, and Taiwan's Economic Development." *Pacific Affairs* 60(2).
- Hsiao, H. H. M. 1994. "The State and Business Relations in Taiwan." R. Fitzgerald, ed. *The State and Economic Development: Lessons from the Far East*. Singapore: Toppan Company.
- Hwang, Y. D. 1991. *The Rise of a New World Economic Power: Postwar Taiwan*. London: Greenwood Press.
- Lau, L. J. 1994. "The Competitive Advantage of Taiwan." R. Fitzgerald, ed. *The Competitive Advantages of Far Eastern Business*. Singapore: Toppan Company.
- Li Kuo-Ting. 1988. *The Evolution of Policy Behind Taiwan's Development Succes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Lin Ching-Yuan. 1989. *Latin America vs East Asia: A Comparative Development Perspective*. New York: M. E. Sharpe.
- Rabushka, A. 1987. *The New China: Comparative Economic Development in Main China, Taiwan, and Hong Kong*. San Fransisco: Westview Press.
- Ranis, G., and S. A. Mahmood. 1992. *The Political Economy of Development Policy Change*. Cambridge: Blackwell.
- Wade, R. 1988. "The Role of Government in Overcoming Market Failure: Taiwan, Republic of Korea, and Japan." H. Hughes, ed. *Achieving Industrialization in East Asi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1990. *Governing the Market: Economic Theory and the Role of Government in East Asian Industrializa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World Bank. 1993. *The East Asian Miracl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ABSTRACT

Taiwanese Economic Growth and the Heavy and Chemical Industrialization : A Comparison with South Korea

CHO Jun-Hyeon

Professor,

Institute for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of Pusan National University

The success in economic development of East Asian NIES, including South Korea and Taiwan, is often compared with the failure of Latin American countries. Then there are some misunderstandings, such as the success of East Asia and the failure of Latin America, which need to be decided from each development strategy itself. These misunderstandings cause other prejudices which regard as if the reverse of economic position of the two areas had been decided already in the 1960s. But most of Latin American countries were keeping higher income level and productive capacity than East Asian NIES until latter half of the 1970s. It was the early 1980s that economic reverse between the two areas appeared.

It is sure that Export-Led Development strategy is still basic in East Asian NIES since the 1960s. But, there was an important strategic conversion in Korea and Taiwan in the 1970s: that is, Heavy and Chemical Industrialization. The very crucial point in evaluating economic success of East Asian NIES including Korea and Taiwan is that they have continued high growth more than 30 years, and

factors of such long-term growth can not be explained only by Export-Led Development strategy of the 1960s.

There are two points in this paper. First, the reverse of economic position between East Asian and Latin American countries, which had appeared since the 1980s, is owing to the success of export-oriented Heavy and Chemical Industrialization of Korea and Taiwan during the 1970s. Second, Korea and Taiwan industrial and export structures have been standing its essential aspects since 1980s, and this basic structure was formed by Heavy and Chemical Industrialization of the 1970s.

Key Words : Heavy and Chemical Industrialization, Taiwanese Economy, NIES